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수익률 커브 컨트롤 도입 가능성 대두
 - ◇ (초점)-제기능 못하는 크레딧채권 평가제도..'모럴 해저드' 논란
 - ◇ (시장진단)-통화스왑까지 얼어낸 외환시장..다음 시나리오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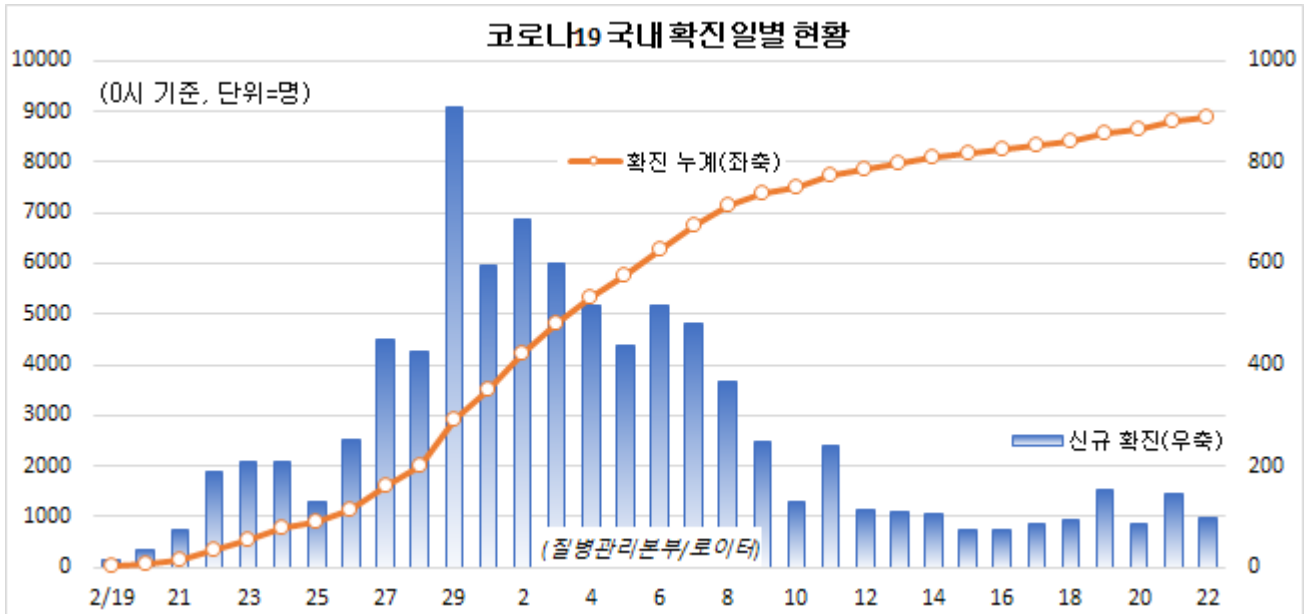
코로나 19 우려로 운수업이 크게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미국 마이애미국제공항 주차장에 빈 택시들이 대거 주차돼 있다. (로이터/카를로스 배리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2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46.5	-2.2%	-7.2%	-3.5%	유로	1.0694	-3.7%	-4.6%	-2.3%
100엔 대비	1,131.9	-0.9%	-6.1%	-4.4%	엔	110.80	-2.6%	-2.0%	0.9%
유로 대비	1,341.5	0.3%	-3.6%	-1.3%	위안	7.1119	-1.2%	-2.1%	-1.3%
위안 대비	176.76	-2.3%	-6.3%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19,173.98	-17.3%	-32.8%	22.3%
코스피	1,566.15	-11.6%	-28.7%	7.7%	나스닥	6,879.52	-12.6%	-23.3%	35.2%
코스닥	467.75	-10.7%	-30.2%	-0.9%	S&P500	2,304.92	-15.0%	-28.7%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10.98	-10.1%	-25.6%	15.8%
국고채 3Y	1.107%	-4.2bp	-25.3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88%	7.4bp	-9.2bp	-40.4bp	미국채 2Y	0.325%	-18.3bp	-123.6bp	-93.7bp
국고채10Y	1.611%	4.1bp	-7.2bp	-26.5bp	미국채 10Y	0.885%	-9.8bp	-102.5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22.63	-28.7%	-62.9%	34.5%	한국 5Y	46.1bp	5.4bp	25.1bp	-17.0bp
금(현물)	1,497.64	-2.1%	-1.3%	18.3%	일본 5Y	38.8bp	3.6bp	21.0bp	-4.0bp
TR상품지수	2,243.95	-1.1%	-9.7%	4.8%	중국 5Y	65.0bp	-2.8bp	34.3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0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0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0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0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0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0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0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0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23일(월)>

-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속도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24일(화)>

- 기재부, G20 특별 화상재무장관회의 결과 (07:00)

<25일(수)>

- 한은,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1월 인구동향(12:00)

<26일(목)>

- 한은, 금융안정 상황(3월)(11:00)
- 기재부,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17:00)

<27일(금)>

-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23일(월)>

- 미국, 2월 전미활동지수 (22:30)
- 유로존, 3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24일(화)>

- 일본, 3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일본, 1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4:00)
- 유로존, 3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2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3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2월 신규주택판매 (23:00)

<25일(수)>

- 일본은행(BOJ) 1월 20-21일 통화정책회의 의록 발간(8:50)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OCR) 발표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1월 주택가격 (22:00)

<26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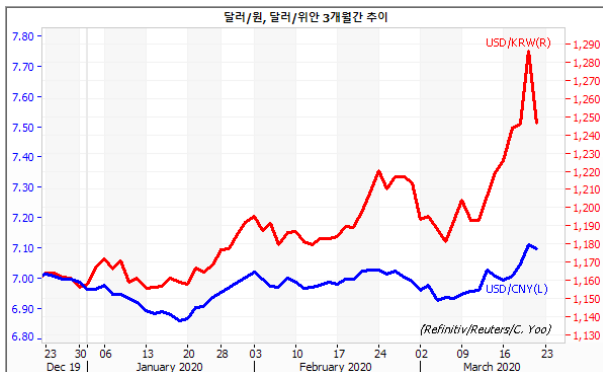
- 유로존, 2월 총유동성(M3) 증가율 (18:00)
- 유로존, 2월 가계대출 (18:00)
-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 결과(21:00)
- 미국, 4분기 기업이익 수정치 (21:30)
- 미국, 4분기 GDP 확정치 (21:30)
- 미국, 2월 도·소매재고 잠정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3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7일(금)>

- 일본, 3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일본은행(BOJ) 3월 18-19일 정책위원 의견 요약본 공개(8:50)
- 중국, 2월 산업생산 (10:30)
- 미국, 2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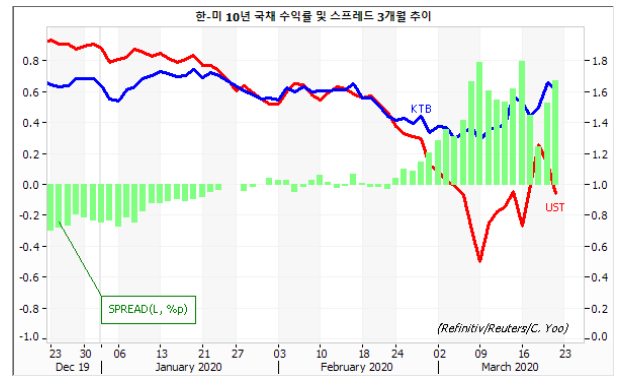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 여건 따라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주처럼 금융위기급 변동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30-1300 원이다.
- 글로벌 외환시장의 달러 유동성 관련 지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발 빠르고 대담한 정책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달러 유동성 경색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다.
- 최근 빠른 당국 대응에도 시장의 빠른 실망이 나오는 패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왑이라는 최선의 해법을 이미 받아낸 시장이 앞으로 어떤 기대로 버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해외자산 가격 안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 때마다 불거지는 달러 수요의 폭발적 증가 현상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이번 주에 나올 주요국 경제지표도 환율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과 미국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를 비롯해 미국 2월 신규주택 판매와 내구재 주문,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 중국 2월 산업생산 발표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 국내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 3월 소비자동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지난주 달러/원 환율의 주간 변동폭은 90 원에 이른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공식 선언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환율도 지난주와 같은 변동폭을 보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 소식과 함께 안정을 찾은 외화자금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초점은 '살아남기'다. 결국은 코로나 19 확진자 커브가 꺾이는 시점까지 버텨내는 것이다. 기존 포지션의 롤오버가 돌아올 때마다 주가는 흔들릴 것이고 금리 역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 다만 거의 무제한으로 쏟아지고 있는 중앙은행 유동성에 힘입어 두 주든, 한 달이든 버틸 수밖에 없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경우 방역 대응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여전히 높다. 미국이 살겠다고 달러 유동성을 쏟아내면서 일단 달러 위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다. 외화자금시장이 안정된다면 지난주에 나타났던 패닉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
- 금융당국은 이번 주 27조원 규모의 증시·채권 시장안정펀드를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검토에 나선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 시기는 5월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발표하고 27일에는 3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다음 달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한다.

(초점)-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수익률 커브 컨트롤 도입 가능성 대두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70여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수익률 커브 컨트롤 카드를 꺼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주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등 자산을 앞다퉈 매도하고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또 하나 채권에 부정적인 것은 재정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채권 발행의 급증이 될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의 회에 다음주 초까지 1조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을 신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수익률 커브 컨트롤이 도입되면 연준은 수익률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 필요한 만큼 채권을 매입해 수익률을 다시 목표치로 끌어내림으로써 수익률 상승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양적완화와는 다른데, 양적완화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증권 등의 채권 자산을 정해진 양 만큼 매입하는 것으로, 수익률이 낮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튼 밴스 매니지먼트의 에릭 스타인 글로벌 채권 디렉터는 "수익률이 낮을 때는 의미가 없겠지만, 절대적인 수익률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수익률 커브 컨트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연준이 실질 성장 전망이 매우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 실질 금리가 상승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9일 0.31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1.12%로 상승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 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했던 지난 연말의 1.91% 수준은 하회하고 있다.

공급 급증으로 초래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성장세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와 연준의 노력에 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주 수익률 급등은 또 유가 급락에 따른 인플레이 기대치 하락을 거스르는 것으로 연준의 2% 인플레이 목표 달성 노력에 또다른 역풍이 된다.

모간스탠리 투자운용의 짐 카론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것은 역설"이라면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마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 중에 수익률 커브 컨트롤 종류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이 일종의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시행하거나 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수익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등 연준 관리들은 다음 경기하강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수익률 제한을 논의해왔다.

씨티그룹 금리 전략가들은 이번주 보고서에서 "경기 하강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주택업계 등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은 고전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익률 제한을) 정책적으로 적절한 행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달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한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작했다. 다만 미국 국채 유동성 관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연준은 과거 재무부의 2차 세계대전 비용 조달을 돕기 위해 한때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한번 채택한 바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6년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도입했다.

미국은 적자 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의료비용 증가로 이미 부채를 늘릴 필요가 커지고 있다. 비당파 의회예산국은 현 위기 이전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올해 17조 9000억달러에서 2030년 31조 4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도 한몫했다. 블룸버그뉴스는 19일 미국 정부가 신규 지출 총당을 위해 초장기 채권 발행 옵션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앙코리서치의 짐 비앙코 사장은 "이 위기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며, 채권시장을 통해 조달될 것이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위기 이후 시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능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초점)-제기능 못하는 크레딧채권 평가제도..채안펀드 매입 앞두고 '모럴 해저드' 논란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크레딧 채권 매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통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처음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데, 당장 민간평가사가 발표하는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면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크레딧 채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높은 금리에 체결되는 거래를 평가사들이 '무언의 압력' 아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안펀드의 크레딧 채권 매입을 앞두고 '모럴 해저드'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시장 급변에도 크레딧 스프레드 '찐곰'..채안펀드 매입 앞두고 '모럴 해저드' 논란

채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고채 대비 AA 플러스 카드채 2년물 스프레드는 37.7bp, AA 카드채 2년물 스프레드는 39.8bp를 기록했다. AA 플러스 카드채 2년물 금리가 전날보다 15.4bp, AA 카드채 2년물 금리가 15.4bp 상승했지만 국고채 2년, 3년 금리도 각각 14.2bp, 14.3bp씩 올라 스프레드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달 말 24.5bp 수준이었던 AA 플러스 카드채 2년물 스프레드는 이달 들어 13.2bp 벌어졌고, AA 카드채 2년물 스프레드 역시 같은 기간 11bp 벌어

지는 데 그쳤다. 스프레드만 보면 크레딧 채권 시장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크레딧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채안펀드 조성을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경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장중에도 크레딧 채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고 일부 캐피탈채권 등은 민평 금리보다 40bp 위에서 호가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평사가 유통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안펀드가 곧 조성되고 이른 시일 안에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평가금리가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 외은 지점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수요가 없다 보니 회사채 거래가 안 되는데 평가금리는 통안채 금리 수준에서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부 증권사가 회사채를 찍은 후에 채안펀드에 매입을 요청할 텐데 결국 기준은 평가 테이블에 있는 금리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현재 상황이 신용리스크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의 평가금리에는 일정 부분 무언의 압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밀하게 봤을 때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은 유통성 프리미엄을 반영해 프라이싱하는 게 적절한데 그럴 경우 시장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금리 문제를 감안할 때 당국이 채안펀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할 듯하다"며 "유통물보다 발행물 위주로 매입하고 받아 가는 곳은 일정 부분 징벌적 스프레드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평사 금리 반영에 시간차 불가피..'CD 고시가 진짜 문제' 반론도

다만 민간평가사가 유통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이전부터 시차가 있었던 만큼, 최근 상황을 두고 모델 해저드 운운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거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한두 건이 높은 금리에 거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에 반영하는 게 더 불합리하다는 반론이다.

국내 평가시스템의 문제는 91 일물 CD 금리 고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당장 크레딧 채권 시장만 문제 삼아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채안펀드 역시 유통물이 아니라 발행물 위주로 매입하기 때문에 민평 금리 자체가 결정적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C 자산운용사 채권매니저는 "한두 건 거래된 것을 반영해 평가금리 변동성을 너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구간에서 500 억원 거래됐는데 모든 구간 금리를 40bp 씩 올릴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거래량 자체가 마른 상황이라 지금은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채안펀드 역시 크레딧 채권 금리가 튀지 않게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이지 낮은 금리에 다 받아주자는 컨셉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D 증권사의 채권 중개인은 "얼마 전까지 유통금리와 가장 큰 괴리를 보였던 게 CD 금리"라며 "크레딧 채권 역시 몇 건 거래가 됐다고 전체를 다 평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으니 민평 반영은 조금씩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안펀드가 크레딧 채권을 매입한다 해도 시세는 민평 금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며 "어차피 민평 금리를 믿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는 데다 실제 거래를 하려면 훨씬 높은 금리여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진단)-통화스왑까지 얼어낸 외환시장..다음 시나리오는?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패닉 성 달러 매수에 호가 공백이 생기는 금융위기 급 공포를 경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이 전 세계 실물 경제를 마비시켰고, 이에 금융시장이 급속히 경색되는 과정에서 극도의 달러 사재기 현상 속에 국내 외환시장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단기 외화자금시장에서 증권사 마진 콜, 외국인 주식 역송금 등에 따른 일상적이지 않은 차입 수요가 몰렸고, 그 여파는 그대로 달러/원 현물 시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해외자산 가격 폭락에 따른 달러 오버헤지에 대한 수요, 외인 증권자금 이탈 수요 그리고 일단 달러를 사고 보자는 패닉 성 수요 등 그야말로 위기에만 등장할 법한 다양한 형태의 달러 수요가 몰리며 환율은 한 방향으로 내몰렸다.

그 결과 달러/원은 19 일 하루 만에 50 원 넘게 치솟았고 이에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 원대를 넘보기도 했다.

국내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도 먹히지 않을 만큼 패닉으로 치달던 외환시장은 바로 다음 날인 20 일 전날의 폭등분을 모두 토해내고 있다. 모든 시장 참가자가 외환시장의 유일한 해법으로 입을 모았던 한-미 통화스왑 체결 낭보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 다음 시나리오는

한국은행은 지난 2010 년 종료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의 통화스왑 계약을 10 년 만에 다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2008 년 당시의 두 배인 600 억 달러, 계약기간은 최소 6 개월이다.

달러 유동성 경색 공포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진정제가 투입된 데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안심하고 있다. 2008 년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등 국내 외환 방파제가 보다 막강해졌지만 달러 유동성 경색 우려 앞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한-미 통화스왑이 또다시 해결사 노릇을 한 셈이다.

이에 이날 달러/원 환율은 3% 이상 폭락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는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이라는 현재의 강력한 시장 테마는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달러지수는 3년 만의 최고치로 급등해 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한-미 통화스왑이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제공하며 시간은 벌었지만 모든 정책을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정책 카드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연준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급하게 통화스왑을 체결해야만 하는 배경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시장 안에서 공포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밖의 공포다. 앞으로 우울한 지표들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면서 "맹목적인 달러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19가 실물 경기를 압박하면서 증시를 짓누르는 현 상황에서 증시 회복 여부도 달러/원 환율 수급상 중요한 변수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한-미 통화스왑이 일단 급한 불은 꺾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롱 스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글로벌 증시가 전환되고 이에 따라 외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와 관련된 달러 수요가 잠잠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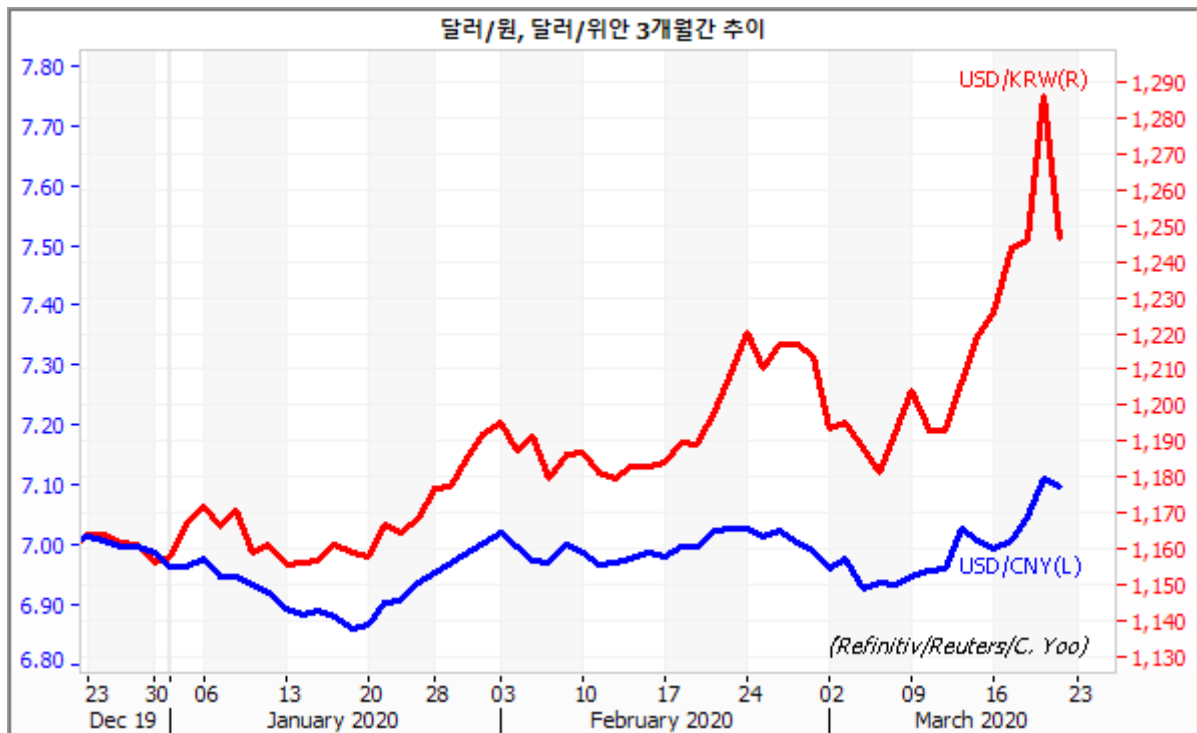
당분간 달러/원 환율의 폭등세는 벗어났지만 의미 있는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결국 의미 있게 바뀐 것은 없다. 그렇다면 전날 과했던 환율 흐름을 일부 걷고 접근한다면 환율은 직전 고정인 1245-1265 원 선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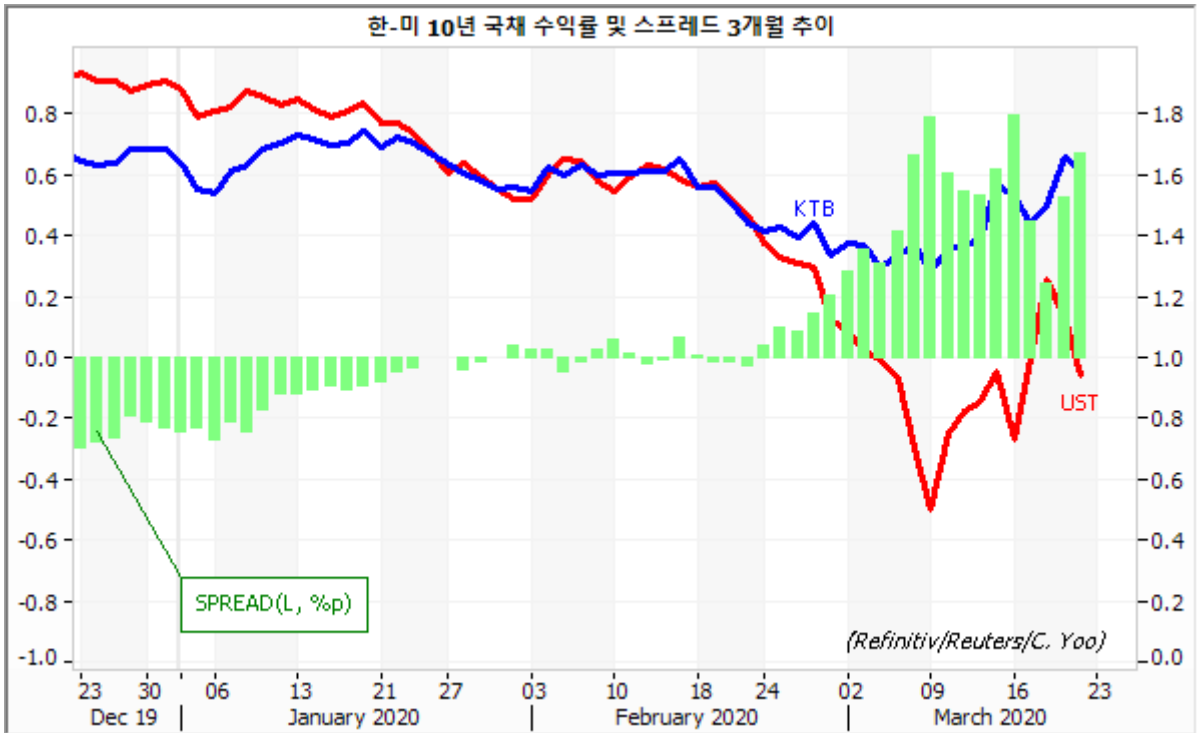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